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이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농사는 우리 국민의 주된 식량공급원임과 동시에 풍요로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정서의 함양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허세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절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산군의 경우에 쌀농사는 우리 군민의 주된 생계유지수단이며 서산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9만여 서산군민을 대표하는 서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쌀수입개방은 우리의 젖줄 및 생명을 대외에 내놓는 것으로 절대불가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식량안보 및 지역경제유지 발전차원에서 제15회 정기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개방의 對象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과 아울러 조부조항등 불공정협상 내용을 담고있는 GATT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국내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청한다.

네째, 정부는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섯째, 서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우리의 농어업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서 산 군 의 회 의 원 일동